

# ‘정신 나간’ 성범죄 경찰관들

###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성폭행 고소 당해

### 성매수에 불법마사지 업소 출입 적발 등 기강 해이 심각

현지 경찰관이 잇따라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삼아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잇따라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 중이거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은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A순경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순경은 지난 5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중생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인 전북의 한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순경을 대기발령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영암경찰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경위를 징계했다. 경찰은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조근 만남’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번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경위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 성매수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경찰서 C경장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가 때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영암경찰은 B경위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처분을, C경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 4월에는 여중생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의 성매매에 연루됐거나 유착 의혹을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

다. 당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D경위는 파면됐고, 성매매와 술집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난 E경위도 항응수수 등으로 해임됐다.

직원간 성추문도 잇따라 불거졌다. 광주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F경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인 모순경을 폭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F경장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F경장을 파면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G경위는 지난 3월말 심야에 같은 부서 여직원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지역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달 사이 직원들의 성추문과 비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내부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선생님이 성추행” 여중생 수십명 호소 수사

### “체지방 측정 중 가슴 접촉”

### 순천경찰, 체육교사 입건 조사

여중생 수십명이 50대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은 신체검사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순천 모 중학교 체육교사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3학년 2개 반 여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체력평가 5개 항목 중 하나인 체지방 측정을 하면서 B양(15) 등 40명의 가슴을 손과 팔로 스치듯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력검사 첫 날인 24일 일부 학생들은 “A교사가 체지방 측정을 방해해 성추행을 하는 것 같다”며 친구들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둘째 날에도 A교사가 같은 행동을 계속하자 피해 학생들이 학교 측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A교사는 경찰에서 “체지방 측정과정에서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여중생 9명에게 피해 진술을 받는 등 A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순천교육지원청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A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집단 폭행 그냥 지나친 선생님들

### 여고생 10명이 후배 4명 폭행

### 특별생활지도 나선 교사 6명

### 현장 3차례 보고도 대처 못해

해남공고 2학년 여학생들이 후배들을 5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가운데 특별생활지도에 나선 해당 학교 교사들이 현장을 수차례 보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일부는 고막 등이 파열돼 수개월 동안 병원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활지도 교사들이 제대로만 대처했다라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9일 해남공고와 해남경찰에 따르면 해남공고 2학년 여학생 10명이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 동안 1학년 후배 여학생 4명을 데리고 다니며 폭행했다. 피해 학생 4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2명은 고막이 파열됐다.

학교 측은 지난 24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2학년 여학생 10명 중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4명을 전학 조치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출석정지 10일, 나머지 5명은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2학년 학생들은 후배들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위 높은

협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특별생활지도에 나선 교사 6명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단대로 모여 있는 현장을 3차례 보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목 모임으로 알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해남공고 관계자는 “저희도 나중에 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며 “현장에서 학생들이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선루배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고 귀가하러는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남경찰은 후배들을 집단으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2학년 여학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상무금요시장 폐쇄 놓고 또 충돌...서구청 업무 2시간 마비

광주 서구청의 상무금요시장 폐쇄 움직임에 반발한 노점상인들이 지난 27일 일주인 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이날 충돌로 서구청은 2시간동안 업무가 마비됐다. 서구청은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노점을 인근 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20년간 장사하며 어렵게 만든 상권이다. 끝까지 지키겠다”며 전국노점상협회 회원들과 연대해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달 8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원만하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판결 2제

### 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나면 ‘자살방조죄’ 처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직 실패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판하다가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모의,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나눠먹은 뒤 연탄불을 피워놓고 함께 잠이 들었다.

5시간 가량이 지나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주인이 방으로 전

화를 걸었고 A씨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A씨는 모텔 업주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을 시도했을 뿐 자살을 적극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신안 장산도 교사 실종

### 11일째 행방 묘연

신안 장산도에서 30대 교사가 실종 11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29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30분께 장산초등학교 교사 박모(30)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동료 교사와 가족들로부터 접수됐다.

학교 측과 가족은 이날 낮 1시30분 박씨가 관사를 나선 이후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해경은 섬과 주변 바다를 수색중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중양분리대 무단횡단 사망, 운전자 과실 없다” 무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광주지법 양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차량으로 광주 무진대로를 운행하다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무단횡단 한 이모(31)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무단횡단 보행자 출현을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김씨가 무단

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사고가 김씨의 과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도로는 왕복 12~14차로에 폭이 64m에 이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됐으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이 금지된 장소다. 또 사고시간이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이씨가 짙은 회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양 판사는 “급제동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아니었고 진행방향에 전향해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누가 심었나” 양귀비 1000그루



○신안 임자도의 한 야산에서 누군가 계획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양귀비 1000여그루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중.

○2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신안군 임자면 한 마을 야산에서 양귀비 1020그루를 발견, 압수했다는 것.

○해경은 “양귀비 밭 주변에서 수거된 물병·호미 등에서 지문을 채취해 양귀비 재배자를 추적 중”이라며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관상용 등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노대지구 3층 상가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뒷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

◆ 보 1억6천, 월 1,400만 (용 14억)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b>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b> →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조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 <b>■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b>	<b>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b>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인제)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좋음 <b>■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b>
<b>서구 양동 (숙박 시설)</b> →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 <b>■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b>	<b>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b>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b>■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b>
<b>서구 화정동 (툰 나이트)</b>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앞, 나이트 운영 <b>■ 감정가 140억 - 최저가 50억</b>	<b>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b>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b>■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b>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832-9700